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22
----------	------

발의연월일 : 2024. 9. 4.

발 의 자 : 한정애 · 송옥주 · 문진석
조인철 · 이광희 · 이병진
이학영 · 조정식 · 이재강
이언주 · 박홍근 · 이원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외교’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민간에 입양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강하거나 주위 환경변화에 취약해 동물원에 전시하거나 공공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⑦ (생 락)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⑧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